# 肝炎의 모든것

◇… 감염이란 말은 간장의 염증과 간세포 손상으로…◇
◇…인하여 오는 간의 종대와 두통, 황달등 여러가지 증…◇
◇…상을 의미한다. 간에 생기는 염증은 바이러스 외에도…◇
◇…알콜, 화학물질, 약물등의 독작용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으나 바이러스가 주로 간장에 침범해 생기는 바…◇
◇…이러스성 간염이 그 발생빈도가 임상적 중요성에…◇
◇…있어 다른 원인들보다 훨씬 중요하다. 따라서 바이…◇
◇…러스성 간염에 대하여 주로 기술해 보겠다. …◇

정 규 원
〈가톨릭의대 내과교수〉

## 초기엔 감기증상…피부에 황달도

## B형바이러스 혈액體液서 "전파"

▲ 바이러스성 간염의 종류는?

우리나라에는 50만명이상의 환자와 400만명이 넘는 간염 보균자가 있읍니다. 바이러스성 간염에는 최소한 세가지 다른 간염이 있읍니다. 즉 A형간염, B형간염, A형이나 B형이 아닌 NANB형간염이 있고 그외에 Ebstein-Barr바이러스 간염, cytomegaloviurs간염등이 있으나 만성화의 경향과 간암 발생과의 연관성으로 관심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가 만성보균자로 되어 있는 것이 B형간염입니다. 또한 B형간염보균자나 B형간염환자에서 delta항원에 의해서 생기는 delta항원 간염도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보고례가 없읍니다.

▲ 간염의 전파양상은?

A형 간염 바이러스는 대변으로 배설되므로 감염된 사람의 분변에 직접 오염되거나 손가락에 묻던지, 오염된 주방기구와 식기에 접촉되면 구강을 통하여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간염을 일으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는 모든 체액분비물에서 발견되는데 수혈, 키스, 성교나 문신, 침을 맞거나 병원에서 각종 처치시 오염된 기구를 사용하므로 전파됩니다. NANB형간염은 그 전파경로가 아직 분명하지 않으나 수혈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경로입니다.

▲ 바이러스 간염의 증세는?

식욕감퇴, 무력감, 미열, 근육관절통, 오심, 구토, 소화불량, 복통이 흔하며 때로 설사도 생깁니다. 처음에는 감기 비슷하기 때문에 진단이 어려우며 일부만이 진한 암갈색 소변이 보이게 되고 그후 피부와 안구에 황달이 보입니다. 황달이 생기면 소양감도 있을 수 있고 경과중에 2~5키로의 체중감소가 올 수 있읍니다.

▲ 간염 보균자는 무엇이고, 어떻게 알 수 있나?

건강하면서 여러해동안 B형 바이러스를 몸안에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읍니다. 혈액검사상 $HB_s$항원이 양성이라면 그분의 간에는 B형간염 바이러스가 살고 있다는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HB_s$항체가 검출되지 않고 항원만이 나타나므로 간염보균자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읍니다.

▲ 간염환자일 경우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기회는?

정상보균자와는 달리 급성 및 만성 활동성 간염이나 간암일 경우 바이러스 보유율은 환자의 80~90%로 높으며 그 중에서 10~30%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 우리가 간염에 걸릴 위험성은 얼마나 되나?

바이러스성 간염은 놀라운 속도로 증가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정도 새로 감염되며 이들중 대부분이 아이들과 젊은 청년들입니다. 더구나 건강인 100명중 10명꼴로 B형 간염항원 보균자로서 그중 감염성 보균자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아이들에게 간염을 옮기고 있읍니다.

▲ 입원이 꼭 필요하고 간전문의의 진찰을 받아야 되나?

대개의 경우는 입원이 꼭 필요하지는 않읍니다. 잘 먹지 못하거나 병이 심하고 합병증이 생기면 입원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의원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읍니다만 황달이 심하거나 발열, 구토등 심한 증세가 나타나면 전문의의 진찰이 필요합니다.

▲ 간염에 특효약이 있는가?

특효약은 없읍니다. 다만 대중요법이 약간 도움이 될 뿐이며 예방이 제일 유효한 치료법입니다.

▲ 섹스를 피해야 하나?

간염의 급성기에는 회복을 위하여 조심하는 것이 좋지만 섹스는 질병의 경과나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읍니다. 다만 배우자는 B형 간염이나 NANB간염에 걸릴수 있읍니다.

▲ 누어만 있어야 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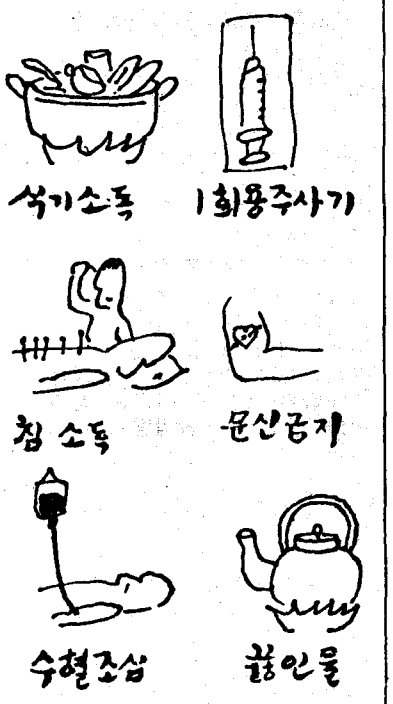
식욕부진, 쇠약감이 아주 심하지 않으면 누워만 있을 필요는 없읍니다. 간염의 급성기에는 가급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DPT나 소아마비처럼 B형 간염 백신을 투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간염의 전파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A형 간염의 전파는 개인위생만 조심하면 됩니다. 일단 발병된 환자는 전염성이 없으므로 분변의 오염가능성을 제거하면 됩니다. 통변후 손을 깨끗이 씻고 환자가 사용하던 물건을 따로 씻어서 빨래를 하면 전염을 방지할 수 있읍니다.

B형 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① 혈액이나 체액에 오염된 물질을 같이 사용하지 맙시다. ② 헌혈하지 맙시다. ③ 가족이나 친지에게 손을 자주 씻고 위생생활을 하게 할것. ④ 급성기에는 키스나 성교를 하지 말것. ⑤ 면도날, 치솔, 손톱깍기, 수건등 일용품은 전용으로 하고 빌려쓰지 말것. ⑥ 월경처치후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을 것. ⑦ 주사기나 주사침을 1회용으로 사용할 것. ⑧ 채혈검사시에 의사나 간호원에게 $HB_s$항원 보균자라는것을 알려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NANB간염에 대해서도 B형 간염과 유사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 위생환경이 중요하다.

▲ B형 간염 백신을 어떤 경우에 맞는가?

$HB_s$항원 보균자나 B형 간염 환자는 백신주사가 필요없읍니다. 가족들은 필히 검사를 해서 항체가 안생긴 사람들은 이 백신을 접종해야 됩니다. 특히 소아나 젊은이들에게 예방주사가 필요하며 60세이상의 노인에게는 면역체계가 약하여 간염이 잘 안걸리므로 예방주사가 거의 필요가 없읍니다. 앞으로 B형 간염을 박멸하기 위해서는 모든 신생아에게 출생후 24시간이내에, 1개월후, 2개월후 또는 6개월후에 걸쳐 3회 실시하는 예방주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건강의 햇볕」 삼일제약

## 당뇨병성망막증

진보된 현대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치가 되지 못하는 난치병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읍니다. 눈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기 위해 수많은 미소혈관이 분포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당뇨병이나 고혈압등에 의하여 이들 미소혈관에 병변이 발생되면 다시 정상회복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망막증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을 취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당뇨병환자는 혈당관리, 고혈압 환자는 혈압관리가 매우 중요한 동시에 각종의 혈관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혈관 보호제를 투여하는 것도 중요 합니다.
왜냐하면 혈당이나 혈압관리가 잘되고 있는 환자도 병력에 따라 망막증의 발병율이 증가되므로 실명의 원인이 되는 망막증의 예방 및 치료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읍니다.

# 당뇨병! 왜! 후루다랜을 복용하는가?

## 망막증에 대한 후루다랜의 약효입증!

후루다랜®은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는 약물중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해 임상효과가 입증된 유일한 약물입니다.
최근 당뇨병 및 고혈압의 혈관 합병증 치료제로 유럽에서 각광을 받은 후루다랜의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한 효능을 평가하고자 국내8개 의과대학 부속병원 안과학교실에서 Multi Center Study를 12개월간 실시후 종합평가의 결과 후루다랜은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해 약80%이상이 호전 또는 안정되는 양호한 성적을 얻었으며 또한 내약성도 매우 우수한 약물이라고 보고 했읍니다.
망막증의 초기단계에서 후루다랜을 투여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으므로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후루다랜은 당뇨병성 백내장, 신경증 및 신증등의 당뇨병 관련합병증에 대해서도 개선효과를 나타낸 바 있으므로, 당뇨병 환자의 미소혈관 합병증을 치료관리하는데 전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약물입니다.

청구권과 함께 아래 사항을 적어 보내주시면 당뇨병과 합병증에 대한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보내실곳 : 광화문우체국사서함 351
나이 :
보신 잡지명 : SP 1